

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

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새고려신문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2018년 4월 27일(금)

(음력 3월 19일)

Пятница

4 мая 2018 г.

№ 17(116784)

1949년 6월 1일 창간

Цена свободная



▲ 5월 1일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하여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시민들의 행진이 있었다. (관련기사 3면)
(이예식 기자 촬영)

사할린, 농산물 생산량 증가

주 정부에서 1/4분기의 사할린주 경제개발 총결을 발표했다.

주 경제개발부에 따르면 지역 총생산액은 2275억 루블리(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00.1%)에 달했고 산업 생산액은 2158억 루블리(2017년 1/4분기의 99.8%)에 달했다.

응축가스를 포함해 지역 원유 채취량은 470만 톤으로 이는 작년 1-3월 보다는 1.2% 낮았고 반면 가스 채취량은 작년과 유사시기 비해 15.4% 증가된 88억m³에 해당했다. 주내 업체들은 240만 톤의 석탄을 채취했는데 이는 2017년 1/4분기보다 1.8배 증가했다. 생선과 해산물 채취량은 19만6800톤(2017년 같은 시기 비해 85.3%로 청어와 명태의 어획량 감소)이었다. 수산물자원 가공은 16만4000톤(작년에 비해 96.1%)에 달했다.

주내에서는 액화천연가스, 동력, 운수, 가구, 생선통조림, 우유, 치즈, 우유제품, 육류제품, 버터, 미네랄 워터 등의 생산량이 증가했다.

현지 농산물 생산액은 8억 루블리에 달했는데 이는 2017년 1/4분기에 비해 129%에 해당했다. 육류 생산은 1.7배, 달걀은 1.4배, 우유는 6.5%로 증가했다. 돼지 마리수는 3개월간 2배, 가금류는 17.3%, 소 마리수는 6.2% 증가되었고 소 한 마리당 평균 우유 생산량은 8.1% 증가됐다.

소비시장을 살펴보면 일반 식품량은 3.8%, 소매무역은 3.3%, 서비스 부문은 1.8% 올랐다.

2018년 3월 말 실업률은 0.7%로 이는 2017년 유사 시기보다 0.2% 포인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할린, 관광클러스터 대한 협정 체결

지난 28일(토) 사할린주 정부에서 관광클러스터 조성에 대한 합의를 체결했다. 협정서에는 사할린주 스포츠부, <압로라>항공, 관광정보센터, 사할린국립대, <고르니 위스두흐>스포츠관광단지의 지도자들이 조인했다.

사할린주 스포츠관광청소년정책부 세트게이 부렌코브 장관은 지역 관광 분야 개발에 조인식이 산업발전에 중요한 추진력이 될 것이라 전망하며 “지역에

교통 접근성 확보, 극동지역의 소규모 패키지 투어 형성을 실현할 계획으로 일련의 상호임무를 논의,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장관은 강조했다. 사할린의 관광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약속한 각 기업체와 기관들은 나란히 전망들을 제시한 가운데 서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열린 협정에 관광관리국, 호텔 경영인, 카페, 레스토랑 등 서비스 관련 기업들의 대표들도 가입하여 협력하길 기대하고 있다.

사할린 청소년 오케스트라와 한국 농어촌청소년 오케스트라 협연 개최

최근 몇 년간 사할린을 해마다 찾아온 한국 농어촌청소년오케스트라(KYDO)가 사할린 청소년 합동오케스트라와 협연을 하기 위해 5월 3일 사할린에 내도한다.

5월 4-5일간 사할린한인문화센터에서 합동 리허설을 갖고 합동연주회는 5월 6일(일) 17시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 콩그레스홀(<스톨리차>비즈니스센터)에서, 5월 7일(월) 18시에는 코르사코브 문화회관에서 펼쳐질 것으로 알려졌다.

키도 오케스트라는 한국마사회가 후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사할린에 36명(학생 31명, 교사 3명, 지휘자, 마사회 대표 등)이 내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신

애국적 명절인 전승일 기념

5월 9일 러시아 주민들은 가장 애국적인 명절인 전승절을 기념한다.

이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전통적으로 전승기념 군사 열병식, <불멸의 연대> 시민행진, 집회, 성화에 헌화식, 명절공연 등이 펼쳐진다. 주요 행사들은 승리광장과 영예광장에서 진행되며 행사에는 수천명의 시민들이 참가할 것으로 보인다.

전승일에 앞서 주내에는 대조국전쟁 참전자, 노동전선 참가자 등을 기리는 수많은 행사들을 개최한다.

4월 24일에는 게오르기 리본 나누기 행사가 시작되었다. 게오르기 리본 나누기 행사는 이어져 5월 4일, 7일, 그리고 9일에도 진행하여 리본 7000여개를 배포할 것으로 전해졌다.

5월 4일 오전 10시 슬라와(영예)광장에서는 <추념의 교대>행사가 개최되고 이 행사의 일환으로 <승리의 별>자동차 릴레이가 시작된다.

<사할린 에너지>, 모스크바에서 독특한 전람회 소개

4월 29일부터 5월 3일 까지 모스크바 <소콜니키>센터에서 <북방의 보물. 2018년 러시아의 장인들과 예술가> 제13회 국제박람회가 열려 러시아 20개 지역들이 참가했다.

특히 <북방의 보물>에는 사회단체·사업체·행정부 대표들이 모여 여러 문제를 논의했다.

<사할린 에너지>회사는 박람회에서 <지구는 어떻게 탄생했는가?>란 전람회를 열어 북방소수민족의 문화와 전통 경제산업의 발전과 보존에 있어 현대적 기관에 대한 정보들을 통해 사할린을 단계적으로 소개하여 성공을 이루었다.

북방소수민족의 사할린 공예 장인들은 활동교실을 열었고, 또한 국제박람회 일환으로 진행된 <북방의 유목민> 축제에 포로나이스크의 <멘구메 일가(은세공 문양)>넵흐 민속단은 멋진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호응을 얻었다고 주취 측이 전했다.

<2018년 고객만족의 유즈니>콩쿠르의 우승자 발표

지난 27일(금)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도서관에서 <2018년 고객만족의 유즈니 2018> 콩쿠르의 우승자와 우수 관광회사가 발표되었다.

<관광 분야 기업의 우수 매니저>부문에서 8명 참가 중 <딜리전스>회사의 조야 나우모와가 우승을 했다. <관광 분야 우수 회사> 부문에는 작년에 20주년을 기념한 <비토모>회사(대표이사 이경희)가 선정되었다. 이 여행사는 일본, 한국 등 개인, 단체 패키지 투어를 전문적으로 하여 2017년에는 1만 7천 명이 이 회사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올해부터 이 여행사는 사할린 내 관광 프로그램을 전개했다.

유즈노사할린시 스포츠관광국 특별상으로는 얼마 전에 새로 개업한 <드루지아-포호드니키(배낭여행친구)>회사가 수상했다.

새고려신문

2018년 신문주문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18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을 계속한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1개월 구독료는 79루블리 38코페이카입니다. 신문은 사할린 모든 우체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 인덱스는 53740입니다.

(본사 편집부)



34세에 야금 총전문가로 승진, 현재 사회사업에 몰두

카자흐스탄 사할린 향우회 회장 이화섭 씨

지난 4월18일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 제15차 사할린 한인 동포단체 대표자 회의가 소집되었는데 이에 대한적십자사 관계자와 러시아와 CIS(독립국가연합)의 사할린한인단체장들이 참석했다. CIS지역은 카자흐스탄 향우회 이화섭 회장이 대표했다.

이(리)화섭씨는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켈롭스키촌에서 1953년에 태어났고 거기에서 10년제 학교를 졸업하기 전(17세)까지 살았다.

무국적자였기 때문에 교육 지역의 제한으로 대학공부를 이르쿠츠크에서 하기로 했다. 그는 공과대학 야금과에 입학했다. 대학시절에 비토소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는 데에 성공했다. 그것이 아니었으면 졸업도, 취직도 안 될 수도 있었다. 그 당시는 대학을 졸업하면 국가가 정해주는 직장에서 3년간 일해야 했다. 이화섭 씨는 케메로워 주 벨로보시에 있는 아연공장에 파견되었다. 이 공장은 러시아의 대규모 아연공장 중 하나다. 대조국전쟁 때 이 공장은 우크라이나에서 이곳으로 피난하여 이전했다. 공장에는 7000여 명이 근무했고 이화섭 씨는 11년간에 교대 마스터부터 공장의 야금 총전문가까지 승진했다. 34세도 채 안 되어 높은 직위에 임명된 것은 진짜 급속 승진였다. 자신의 실력만으로 오른 자리였다. 야금 총전문가로 근무할 때 직원 7000명 중 절반 이상의 이름과 부칭까지 알고 있어서 매일 그렇게 인사했다고 한다.

1987년에 공장에 큰 사고가 있었다. 화재가 발생하여 당시 이미 수석 야금전문가로서 이화섭 씨는 가스구조팀장의 임무



를 수행해야 했다. 화재 신고가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구조팀장을 불러냈다. 화재발생으로 혼합가스가 폭발되자 이화섭 씨를 비롯한 직원 6명이 화상을 입었다. 이화섭 씨는 자리에서 쓰러져 뇌진탕을 당하고 얼굴과 팔에도 2도의 큰 화상을 입었다.

이 말을 들던 필자는 “아무 흉터가 보이지 않는데 완전히 치료되었나요?” 라고 하니 이 회장은 웃으며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 당시 특이한 영적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했는데 그중 하나는 아나톨리 카쉬피롭스키였다. 그는 그때 전국 텔레전방송을 통해 국민치료를 했었다. 아무 반응이 없는 사람도 있었고 도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이화섭 씨에게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했다.

— *임원 시 텔레비전에서 카쉬피롭스키가 방송한다고 알려줬거든요. 마침 화상에 관한 방송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보기로 했습니다. 동료들을 부르고*

같이 보자고 하니 그들이 '너무 아파서 못 움직인다'면서 텔레비전이 있는 1층 방까지 못 간다 해서 저 혼자만 가서 이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어요. 다음날 아침 재방송도 봤습니다. 방송 이후 다섯째 날에는 화상자리에 새 피부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임원 28일째 날 퇴원했습니다. 그때 다 완치된 것이 아니었지만 급속하게 치료되었습니다. 나중에는 화상 자리가 거의 없어졌어요. 저의 동료들은 계속 입원해있었고 화상 흉터도 남아있었습니다... 사실 이 사고로 건강이 많이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그리고 이미 카자흐스탄으로 이사갈 때 어느 날 알마티를 방문한 카쉬피롭스키에게 직접 인사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관중들과의 만남에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화상 완치의 이야기를 해드렸지요.

16년간 한 공장에서 일하다가 1991년에 이화섭 씨는 식구와 함께 카자흐스탄 알마티 주에 있는 작은 도시 탈가르로 이주하여 그곳 비표준 장비 공장 기술 책임자로 스카우트 제안을 받아 취직하게 되었다. 나중에는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이 되어 열심히 뛰게 되었다.

1996년에는 알마티 부근에 있는 대규모 고려인 합동농장조합(전 집단 농장)에 초대를 받고 영업담당 부회장을 역임했다. 이 조합은 주로 부족의 말을 사육하고 농산물을 생산했다. 말과 농산물은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러시아, 벨라루시 등지로 공급되었다. 일하기가 재미있었다고 했다. 2001년에는 회장과 의견이 안 맞아 사표를 내고 그만두었다. 더군다나 아내가 시작한 한국산 양말 장사가 확장되어 이화섭 씨

의 도움이 필요했던 터였다. 현재 카자흐스탄 전 지역 도매시장에서는 한국산 양말무역회사로 잘 알려지게 되었고 알마티에 <한국물산>매점도 세웠다. 사업은 만물이 물려받았고 부모로서는 현재 협조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화섭 씨는 아내와 대학시절 때 만나 결혼했다. 사할린 우글레고르스크구역 출신인 부인은 문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았고 오랫동안 도서관에서 근무했었다. 항상 남편을 뒷받침하며 아플 때 옆에 있어 주는 고마운 사람이라며, 딸 둘을 두었는데 손주 5명이 생겨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행복하다고 이화섭 씨는 말한다.

이화섭 씨는 1세 동포들에 대한 배려가 많다. 이것은 아마 부모를 생각한 때문인 것 같다. 모친께서 부친보다 훨씬 일찍 세상을 떠나자 1998년에 인천사할린동포회관에 영주귀국한 부친을 이화섭 씨는 2000년에 알마티로 모셨다고 한다. 다리 한 쪽이 절단된 상태에서 움직이기 힘든 부친께서는 알마티에서 1년 반만 사시다 돌아가셨다고 했다. 맏아들은 아니었지만 자식으로써 아버지를 끝까지 모실 수 있어서 한편으로 마음이 가볍다고 한다.

사업하면서 조직력이 탁월했던 이화섭 씨는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한다.

카자흐스탄 사할린향우회는 1998년에 창설되었는데 이화섭 씨는 동 단체 활동에 2005년부터 참가해왔다. 그 전에 회장을 했던 여성 두 분이 영주귀국했고 이 씨는 부회장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작년 회장선거 때 임원들은 말할 것 없이 이화섭 씨를 적

극적으로 회장직에 추천했다. 공식 가입 회원 155명 중 27명은 1세 분들이다. 90세가 넘는 분들도 있다. 향우회의 관할 지역은 넓다. 카자흐스탄 외에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즈스탄 등, 중앙아시아 나라들을 포함하고 있다. 회원의 다수는 알마티에서 거주한다. 단체가 따로 사무실이 없어서 임원들은 회장택에 자주 모인다. 회의도 하고 음력 설, 추석 등 여러 명절도 기념하며 들놀이도 즐긴다고 했다. 또한 사할린향우회는 카자흐스탄고려인협회에 속하여 있다. 임원으로서 이화섭 씨는 협회가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도 참가하고 있다.

향우회는 나름대로 1세들을 지원하고 모국방문, 영주귀국 등 관련 사업을 수행해오고 있다.

요즘 이화섭 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한국어다. 조선학교 2학년까지 공부했지만 대학시절부터 40여년 동안 완전한 러시아 언어권 속에 살고 있었고 우리말을 쓸 기회가 없었다고 했다. 사할린향우회 회장이 되어서라기보다 더 많은 한국 분들을 만나게 되어 한국어가 절실하게 느껴졌다는 것이다. 일만잔 대화는 통하지만 술어가 들어가거나 빠른 속도의 한국말은 이해가 어렵단다.

사람의 개방성을 좋아하는 이 회장은 나름대로 열려 있는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천천히, 조용한 음성으로 이야기하는 그에게서는 겸손함과 신뢰성이 느껴진다.

어디를 가나 노력하여 성공을 이루는 우리 2세들이 자랑스럽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사할린 고학년 학생들 <미래로의 출발> 학술대회에서 과학적 기획 발표

4월 27일 사할린주 교육품질평가센터 강당에서 8~11학년생들 대상으로 <미래로의 출발> 응용과학 학술대회가 열렸다.

사할린주 교육품질평가센터 부장인 류드밀라 사커비치는 "이번에 11회째 맞이하는 정기 학술대회는 자신의 장래 진로와 직업을 탐색하게 될 학생들과 고학년생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주제를 '미래로의 출발'로 정했다. 컨퍼런스에서 학생들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지식을 검토하고 장래 공학자, 기술자 등으로서 자신을 발견하며 나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며 학술대회의 의의를 밝혔다.

본 응용과학학술대회에서 기획연구활동의 통신콩쿠르 단계가 종료되고 우수 연구활동이 선정되었다. 심사위원으로는 과학 전공자들, 사할린 국립대학 교수들, 교육개발원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선정된 학생들의 발표를 평가했다.

올해 학술대회에는 사할린의 여러 지역 교육기관의 학생 60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각자 자신이 선택한 주제와 맞는 분야에 참가했다. 총 4개의 분야가 조성되었는데 '자연과학' 분야에 생태학, 생물학, 화학에서 기획들을 발표했고, '물리수학' 분야에 수학, 공학기술, 정보과학, 로봇공학에 관한 발표가 있었다. '역사와 사회문화' 분야에는 철학, 역사, 심리학에 관심을 가진 학생들이, '어문학' 분야에는 문학, 예술, 세

계미술문화를 애호하는 학생들이 참가했다.

응용과학 학술대회는 시상식에서 우승자들에게 상패와 상장을 수여함으로 마무리되었다. '자연과학'분야에서 아나스타시야 구넨, 예카테리나 마트로스, 예고르 멜니코브, 윤 아나스타시야, 올가 사모팔로바가 우승 했다. '물리수학' 분야에서는 복단 안드류셴코, 스테판 데니소브, 유리아 카슈푸로비치, 알렉세이 코셴코와 비롯해 아르쭈프 스냐프스키, 바르바라 슬루기나, 아나스타시야 홀레멘코와의 발표를 선정, '역사와 사회문화' 분야에서 알렉산드르 가브릴로브, 블리디슬라브 스타로스벤스키, 다니일 사조놉, 예고르 예레트니코브, 알렉산드라 자부드스카야, 니키타 사르키소브, 다리야 후스눌리나, 다니일 체니브가 우승했다. '어문학' 분야에서는 야로슬라브 알러신, 조 아리나, 김 아나스타시야, 막심 네메즈, 폴리나 사프르키나, 폴리나 판코바가 선정되었다.

Сахалинские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и представили научные проекты на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рт в будущее"

Областная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учащихся 8-11 классов "Старт в будущее" прошла 27 апреля в актовом зале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 Конференция у нас традиционная. Уже одиннадцатая по счету. Называется она "Старт в будущее", потому что это конференция для старшеклассников, то есть для детей, которые определяют со своей дальнейшей профессией. Они имею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рить себя как ученые, выделиться как будущие техники, инженеры и т.д. — рассказала о конференции Людмила Сакович — заместитель директора центра оценки качества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учно-практическая конференция стала завершающим этапом заочного конкурса проектно-исследовательских работ, на котором были выбраны лучшие работы. Сегодня они были представлены на суд жюри, в состав которого вошли кандидаты наук, преподаватели Сахалинског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сотрудники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образования и другие.

В этом году участниками конференции стали 60 учащихся из образовательных учреждений разных населенных пунктов острова. Каждый из них выбрал себ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иболее подходящее выбранной теме. Всего их было четыре: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е", в котором представлены проекты по экологии, биологии, химии,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е", связанное с математикой, техникой, информатикой, робототехникой,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общества", в которой участвовали интересующиеся философией, историей, психологией, а также "Филологическое" — для любителей литературы, искусства, МХК.

Завершилась конференция награждением победителей плакатами и дипломами победителей. Анастасия Гумен, Екатерина Матрос, Егор Мельников, Анастасия Юн и Ольга Самофалова стали лучшими в естественно-науч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Жюри физико-математической секции выделили работы Богдана Андрющенко, Степана Денисова, Юрия Кашпуровича, Алексея Кошенко, а также Артема Синявского, Варвары Слугиной и Анастасии Холеменковой. В направлении "История и культура общества" победителями стали Александр Гаврилов, Владислав Старосветский, Даниил Сазонов, Егор Еретников, Александра Забудская, Никита Саркисов, Дарья Хуснулина и Даниил Чениб. Жюри филологической секции из всех участников выделило Ярослава Алешина, Арину Де, Анастасию Ким, Максима Немца, Полину Сапрыкину и Полину Панкову.

(8면에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시민들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

5월 1일 '봄과 노동의 날'을 기념하여 사할린 주내에서 주민들의 행진과 집회가 진행되었다. 행사들에 도서 주민 2만3000여 명이 참가했다고 전해졌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도 전통적인 시민행진과 집회가 열렸다. 봄과 노동날에 관련 내용이 담긴 현수막과 플래카드와 다채로운 풍선을 손에 쥔 시민 7000여 명이 시내 2 곳에서 행진을 시작하여 레닌광장에서 만난 후 집회가 진행되었다.

이날 사할린주지사 올레그 코제마코와 사할린주 직업노동단체조합 회장 아나톨리 크루트첸코가 시민들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이들은 노동계 원로들의 공로, 그리고 성공적인 도서지역의 발전에 주목했다.

집회는 기념공연으로 이어졌고 청명한 날씨에 명절행사에는 많은 어린이들이 보호자와 함께 참가했다. 또한 어린이들을 위한 행사들이



곳곳에서 진행됐는데 특히 시공원에서 다양한 오락프로그램들이 펼쳐졌다.

이번 봄과 노동의 날에는 러시아에서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사회정책을 위해>라는 표어 아래 진행되었는데 전국 행사들에서 300만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취재: 이에식기자)

파주 사할린동포, 봄맞이 힐링 콘서트



파주지역에 거주하는 사할린동포 2~3세들을 위한 봄맞이 힐링콘서트가 27일 법원을 초호 컴퓨터에서 열려 파주시민들과 사할동포들이 한데 어울려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파주타임스가 주최하고 초호컴퓨터 우능제 대표, 법원읍기업인협의회, 파주연천축협, 금촌마디편한병원, 해피누리 JU봉사단(단장 조달형)이 후원해 가진 이번 콘서트에는 김영태 사할린동포 회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사할린동포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대부분 70~80대 고령층인 사할린동포들은 이날 점심 식사와 함께 조국란 명창, 최성아, 이명옥, 조금란, 이미옥씨 등민요 가수들의 흥겨운 우리가락에 맞춰 덩싱덩실 춤을 추기도 했다. 이어 가수 서향의 부채춤, 최영훈 트럼펫 연주와 함께 조달형 해피누리 JU봉사단장의 익살스런 탈춤과 최성아씨와 함께 '잘했군 잘했어' 민요를 불러 사할린동포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는 등 춤과 노래로 힐링의 시간을 보냈다.

(경기일보)

[SS리뷰] '한끼줍쇼' 낯설지만 참 따뜻했던 '사할린의 쌀밥'

'한끼줍쇼' 밥동무와 규동형제가 한인 동포들과 극적인 한 끼에 성공했다. 이곳에서 만난 한인들의 서툰 말 속에, 밥술에, 음식에 한국에 대한 그리움은 여전히 녹아 있었다.

25일 방송된 JTBC 예능 프로그램 '한끼줍쇼'에서는 러시아 사할린에서 슈퍼주니어 디앤이(D&E)의 은혁과 동해가 한 끼에 도전했다.

러시아에서 가장 큰 섬이자 대한민국 면적의 88%에 달하는 사할린 주는 일본의 조선인 집단 강제이주가 이루어진 아픔이 묻어있는 땅이다. 그중에서도 사할린 주의 중심도시 '유즈노사할린스크'를 찾아간 강호동과 이경규는 동포들의 흔적을 따라 그 후손들을 직접 만나면서 뜻깊은 한 끼에 도전했다.

사할린에서 한 끼를 위해 동해와 은혁은 규동형제와 함께 한인회를 찾아갔다. 사할린 한인회 회장 박순옥 씨는 한인 2세였다. 그의 아버지는 1939년도에 강제 징용됐고, 탄광에서 일했다. 이렇게 징용된 한인들만 6만 명. 이들 중 대부분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이곳에서 숨을 거뒀다. 이를 들던 네 사람은 안타까운 마음에 침묵했다.

이후 강호동은 사할린에 한인 동포가 모여 사는 곳이 있느냐고 물었다. 하지만 "현재 사할린에 코리아타운이 없다"는 한인회 측의 소식에 네 사람은 막막함에 한숨을 내쉬었다. 이경규는 "동포들을 어디 가서 찾나"라며 착잡해 했다.

사할린의 한 끼 벽은 높았다. 한인타운이 따로 없고 한인들이 다 흩어져 살기 때문. 재래시장에서 얻은 힌트로 규동형제와 밥동무는 동포들을 만나기 위해 사할린 주택가로 향해 동포들이 살 것 같은 집을 추리했다. 하지만 사할린의 주택가는 높은 담벼락은 물론 문패도 없었고, 동포를 비롯한 러시아 사람들도 보이지 않아 험난한 한 끼를 예고했다.

이에 은혁은 집 안에 주차된 자동차와 자전거를 통해 "한국산이다"라고 추측해 눈길을 끌었다.

은혁과 강호동, 동해와 이경규는 팀을 짜고 한 끼 도전을 시작했다. 사할린 주택가는 전부 높은 담벼락으로 이루어져 사람들의 인기척조차 없었다. 이에 동해는 러시아인 현지인에게 속성으로 배운 러시아어로 대화를 시도하며 동포들의 흔적을 추적했다. 또한 "저는 한국에서 왔습니다"를 러시아어로 끊임없이 외치며 고군분투하기도 했다.

힘겹게 강호동과 은혁은 한인 동포를 만났고 간신히 한 끼에 성공했다. 두 사람은 서로 껴안으며 펄 듯이 기뻐했다. 에너지부 파이프라인 엔지니어로 일하는 박일남 씨. 그는 아이들 둘과 아내 네 식구가 살고 있었다. 박일남 씨는 한국 밥술에서 하얀 쌀밥을 건네 반가움을 자아냈다. 또 직접 말린 빙어와 초장을 대접했다.

박일남 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처음엔 낯설어했지만 이내 강호동에게 "형"이라 부르며 웃어 보였다. 특히 그는 한국에 계신 어머니에 관해 묻자 이내 "엄마 많이 사랑해요. 잘 지내고 계세요"라고 말하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경규와 동해는 1시간 넘게 헤맨 끝에 한인 동포를 만났다. 하지만 타국의 동포들에게 낯선 이들과의 한 끼가 쉽진 않았고 8시 되기 2분 전 극적으로 한 끼에 성공했다.

한인 3세 김영권 씨. 그의 부모님은 한국으로 영주 귀국했고 부모



[사진] '한끼줍쇼' 방송화면 캡처

님을 따라왔던 그는 사할린에 남아 살고 있었다. 평상시 식사 준비를 담당한다는 그는 손님들을 위해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이곳에서도 갓 지은 쌀밥이 등장했고 김치와 찜닭과 함께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김영권 씨 역시 한국에 대해 잘 알지 못했지만 "여기서 한국 동포를 볼 줄 꿈에도 몰랐다"며 동해와 이경규를 반가워했다.

'망향의 집' 사할린에서 만난 한인들은 낯설었지만 따뜻했다. 그들은 모두 한국에 대해 잘 모르고 말도 서툴렀지만 실랑민이 될 수 밖에 없었던 윗세대의 고통들을 조금씩은 기억하고 있었다.

한인 2세와 3세인 박일남, 김영권 씨에게도 한국은 낯선 땅이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한끼줍쇼'의 방문에 망설임 없이 한국 밥술에서 흰 쌀밥을 꺼내 대접했다. 한인 동포들의 '모국'에 대한 그리움과 애환이 그들이 대접했던 흰 쌀밥 한 그릇에 모두 담겨있는 듯했다.

(스포츠서울, 2018.04.26)

신창면영회, 사할린영구이주민 어르신 칠순잔치 행사

아산시 신창면 신창면영회(회장 한종길)가 지난 4월 28일 신창면 소화마을주공아파트 광장에서 사할린영구이주민 어르신들과 신창면 내 어르신들을 200여 명을 모시고 칠순잔치 행사를 열고 어르신들을 위해 식사 등을 제공했다.



이날 행사는 사할린영구이주민 어르신들이 본인들이 평생 살아 온 사할린을 떠나 한국으로 이주해서 아산시 신창면 소화마을주공아파트로 입주한 지 10주년을 기념하는 동시에 서로 헤어져 살고 있어 생신상을 해 줄 자녀들이 없는 칠순을 맞이한 어르신 11명을 모시고 칠순잔치로 열렸다. 행사에는 주변의 아파트 어르신들까지 모시고 식사를 대접했다. 행사에 앞서 김정식 신창면장과 신창면영회 회원들이 어르신들께 자식들을 대신해 큰절을 올리는 예를 갖추고, 아산시여성품물단에서는 난타와 여러 가지 공연을 선사했다.

한종길 아산시 신창면 신창면영회장은 "우선 오늘 행사를 위해 적극 참여해주시고 협조를 아끼지 않는 신창면영회 회원들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하다. 우리 아파트에서 거주하시는 사할린 어르신들을 뵈 때마다 웬지 외로워 보여 잘 헤드리고 싶었는데 신창면영회에서 이렇게 칠순잔치를 해 드릴 수 있어 기쁘다. 어르신들께서 항상 건강하시고 재미나게 생활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다.

한편, 신창면영회는 신창면 행복키움추진단(단장 오세홍)과 후원협약을 체결하고 저소득학생 장학금 지원, 독거노인 도배·장판 봉사를 해오고 있으며, 3.1운동을 기념하는 3.1운동 재현 행사, 찾아가는 주민위안잔치 등을 개최하며 주변에 귀감이 되고 있다.

(온양신문)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Ко дню Великой Победы

*Тем, кто на своих плечах
выносил с поля боя Солдата,
ПОСВЯЩАЕТСЯ*

СЕСТРИЧКА

КОТОРЫЙ ДЕНЬ КОСИЛА СМЕРТЬ СОЛДАТА
И ПАДАЛ НАЗЕМЬ, СЛОВНО ХЛЕБНЫЙ КОЛОС,
КТО БЫЛ ЛЮБИМ, КТО ТАК МЕЧТАЛ КОГДА-ТО,
И ТАЯЛ В НЕБЕ ЕЛЕ СЛЫШНЫЙ ГОЛОС ...

припев: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ЗЕМЛЯ ОГНЁМ ОБЪЯТА ...
И ТЫ ПОЛЗЛА ТУДА, ГДЕ РЯДОМ ЖИЗНЬ И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ЕЩЁ ЖИВОЙ, ОН В ДВУХ ШАГАХ ОТ ДОТА
ЛЕЖАЛ В ПЫЛИ, СКВОЗЬ ГАРЬ ВИДНЕЛОСЬ СОЛНЦЕ
УШЛА ВПЕРЕД, СПАСЁННАЯ ИМ РОТА,
А ОН ЛЕЖАЛ И ВИДЕЛ СВЕТ В ОКОНЦЕ ...

припев: МАМА! МАМА! МАМА,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ЗЕМЛЯ ОГНЁМ ОБЪЯТА ...
И ТЫ ПОЛЗЛА ОПЯТЬ, ЗАБЫВ ПРО СТРАХ И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ОН УМИРАЛ, НО ТЫ ЕГО, КАК БРАТА
ТАЩИЛА, УПОВАЯ ЛИШЬ НА БОГА ...
И ПОЛВЕРСТЫ, ДО САМОГО ЗАКАТА,
КАЗАЛИСЬ ВАМ, ЧТО ВЕЧНАЯ ДОРОГА

припев: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СРЕДЬ РАНЕНЫХ САНБАТА ...
И ТЫ БЕЖАЛА В НОЧЬ, ЗАВИДЕВ ЗЛУЮ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СЕСТРИЧКА, МИЛАЯ, НЕ ДАЙ МНЕ УМЕРЕТЬ –
ВЗЫВАЛ О ПОМОЩИ СРЕДЬ РАНЕНЫХ САНБАТА ...
И ТЫ БЕЖАЛА В НОЧЬ, ЗАВИДЕВ ЗЛУЮ СМЕРТЬ,
ПЛЕЧАМИ ХРУПКИМИ СПАСАТЬ ТОГО СОЛДАТА ...

**13.05.2017г., Корея, по дороге на родину предков,
ТЭХО Чан.**



Фото: Ли Есик

Южнокорейские музыканты, джаз-фанк и эксклюзивные сладости: на Сахалине необычно отметили Международный день джаза

29 апреля в Конгресс-Холле «Столица» в честь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дня джаза состоялся музыкальный вечер «Джаз в шоколаде».

Традиция отмечать эту дату появилась в мире шесть лет назад. В областном центре год назад впервые прошло красочное шоу. Джазовые вечеринки решено было сделать ежегодным. Главными участниками нынешнего музыкального вечера стали сахалинская группа «Джаз Тайм» и коллектив Jazzy Bratz из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ости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представили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е интересную программу, состоявшую из композиций, известных не только меломанам, но и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слушателей – Beggin, Besame mucho, Quizas, quizas, quizas и других. Приятными сюрпризами для всех стали песня «Миллион алых роз», прозвучавшая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в исполнении очаровательной солистки Ким Ди Хе, и «Вальс № 2» Дмитрия Шостаковича в джазовой обработке.

– Мы включили их в нашу концертную программу специально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публики, как только узнали, что поедем выступать в Россию, – рассказал Ян Хе Дин, художественный руководитель и гитарист группы.

Он также пояснил, что в Jazzy Bratz – это не только джазовые музыканты. В состав коллектива входят танцоры, которые работают в популярном направлении современных танцев джаз-фанк. Их хореографические номера удачно сочетаются с музыкальными выступлениями. И сахалинские зрители смогли это оценить!

– Очень здорово, что на это мероприятие приглашают джазовые коллективы из других городов России и даже из зарубежных стран, – сказал руководитель группы «Джаз Тайм», Заслуженный работник культуры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индинов. – Контакты с ними очень полезны и для островных музыкантов, и для зрителей. Музыканты Jazzy Bratz очень хорошие исполнители: понимают музыку и обладают отличным вкусом.

Сахалинские джазмены на фоне приезжих коллег выглядят весьма достойно: и по программе и по качеству исполнения. Действительно, инструменталисты «Джаз Тайма» – Владимир



Киндинов, Юрий Суворов, Владимир Машкин, Василий Булдаков, Александр Ласенков и Алексей Гаджибек в этот вечер подарили зрителям много замечательной музыки. В исполнении ярких и талантливых солистов джазового коллектива Елены Акшенцевой, Елены Троян и Андрея Рулёва прозвучало двадцать совершенно разноплановых песен.

Помимо артистов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свои вокальные данные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ла островная певица Яна Александрова. Гостей порадовали две известные артистки Чехов-центра – Ксения Кочуева и Марина Семенова.

Формат «Джаза в шоколаде» и непринужденная атмосфера располагали к танцам. За время шоу гости вечера не раз вставали со своих мест и выходили на паркет, чтобы потанцевать под живую музыку. Приятным подарком для гостей стали эксклюзивные шоколадные лакомства – конфеты и десерты от ведуще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шоколадье Натальи Хлебниковой.

В завершение вечера организатор «Джаза в шоколаде» – Сахалинская филармония отметила грамотами и подарками участников концертной программы, а также профессора, доктора искусствоведения из Южной Кореи Ян Пен Су, благодаря которому состоялся приезд группы Jazzy Bratz. Директор островной филармонии Илья Александров, завершая шоу, поздравил всех с Международным днем джаза и пригласил сахалинцев присоединиться к его празднованию в следующем году, сообщили в областной филармонии.

(Фото: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оддержи национальную газету!**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2018 год.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й диаспоры Сахалина.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 месяц - **79 руб. 38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53740**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реклама

**Тел.: 50-00-50;
43-31-31**

Сводный российско-южнокорейский оркестр даст 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Еще одно грандиозное музыкальное событие ожидает сахалинских любителей классической музыки.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необычный эксперимент — на одной сцене вместе сыграют сахалинский и южнокорейский детские симфонические оркестры. Всего в концерте будет задействовано сто маленьких музыкантов из двух стран.

Уникальное соглашение по обмену талантами было подписано между сахалинским областным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им центром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и корейским симфоническим оркестром KYDO. Документ начал действовать уже в этом году.

3 мая на Сахалин приехало более 30 музыкантов из Страны утренней свежести. 4, 5 мая они проведут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репетиций со сво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из Сахалинского детского симфонического оркестра, после чего дадут совместный концерт.

— Два оркестра исполнят 12 произведений, — отметила директор научно-методического центра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Елена Манойленко. — Каждая сторона определила по шесть произведений. Юные музыканты сейчас учат их по отдельности. А в начале мая, во время совместной репетиции, у них появится

возможность сыграть их уже в составе большого сводного оркестра.

В сентябре состоится ответный визит, в рамках которого 30 лучших сахалинских музыкантов вместе со своими корейскими сверстниками проведут несколько совместных занятий и выступят на сцене в Южной Корее, сообщает центр по образованию в сфере культуры и искусства.

Концерт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пройдет 6 мая в концертном зале Конгресс-холл бизнес-центра "Столица". Начало в 17 часов.

Стоимость билетов — 100 рублей. Приобрести их можно в кассах Сахалинской филармонии, телефон: 304-104.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Саммит США и СК может состояться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Пропускной пункт Пханмунчжом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всё чаще упоминается в качестве потенциального места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США и КНДР. В значительной степени, это связано с символичностью данного места.

В администрации президента РК указали, что Пханмунчжом имеет большое значение. Ранее, 30 апреля, президент США Дональд Трамп сказал, что рассматривает возможность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с КНДР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Он сказал, что проведение встречи в Пханмунчжоме, а не в третьих странах, будет грандиозным памятным событием. На своей странице в Twitter он написал: «много стран рассматриваются в качестве места встречи, но не был бы Дом мира на границе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более показательным и важным местом, чем какая-то третья страна? Просто спрашиваю!». Это послание представлено в форме выражения мнения. Но оно оставляет впечатление о том, что Пханмунчжом рассматривает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Дональд Трамп впервые указывает на определённое место для проведения саммита США и КНДР.

Военные РК приступили к демонтажу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на границе с СК

1 ма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иступили к демонтажу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которые использовались для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го вещания на Север. Это первые меры по реализации договорённостей, описанных в первом пункте второй статьи Пханмунчжомской декларации. Ранее, 23 апреля, южнокорейские военные прекратили вещание на границе. В ответ Север также начал поэтапное уменьшение. Между тем, по сообщению военных РК, на границе замечена активность северокорейских военных по демонтажу громкоговорителей. В тексте декларации указывается, что Юг и Север с 1 мая полностью прекращают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в том числе пропагандистское вещание и отправка агитационных материалов на воздушных шарах, ликвидируя все соответствующие средства. Таким образом, стороны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о создании «пояса мира» в демилитаризованной зоне. Между тем,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нужно решить довольно непростой вопрос с отправкой на Север воздушных шаров с агитационными материалами. Дело в том, что в 2010 году такие отправки были прекращены на 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но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продолжают проводить такие акции.

5 мая Пхеньян перейдёт на единое время с Сеулом

5 мая часовые пояса Северной и Южной Кореи будут унифицированы. Для этого все жители КНДР переведут стрелки часов на 30 минут вперёд. Данная мера предусмотрена указом Президиума Верховного народного собрания «О перемене пхеньянского времени», опубликованным агентством ЦТАК. В нём говорится, что практические меры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облюдения постановления будут предприняты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и подконтрольными ему учреждениям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ий лидер Ким Чон Ын в ходе встречи с президентом РК Мун Чжэ Ином предложил «восстановить стандартное время»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и перейти на единый часовой пояс. «Это станет первым шагом на пути к единству и примирению на Корейском полуострове», - говорится в сообщении ЦТАК.

Разница во времени между Югом и Севером Кореи возникла в 2015 году, когда в Пхеньяне решили отказаться от времени, «навязанного японцами», и ввести особый часовой пояс.

Фильмы «1987» и «Остров Хасима» получили награды на кинофестивале в Италии

Два южнокорейских фильма режиссёра Чан Чжун Хвана «1987» и режиссёрская версия «Остров Хасима» получили призы зрительских симпатий на 20-м международном кинофестивале Far East Film Festival, который проходил в Удине, Италия. Об этом сообщили в продюсерской компании CJ Entertainment. Картина «1987» получила в конкурсном секторе наибольшее количество голосов. В итоге она была удостоена самой высокой зрительской награды Golden Mulberry. «Остров Хасима» оказался на третьем месте, получив Crystal Mulberry. «1987» также получила награду Black Dragon, номинантов которой отбирают СМИ и критики. Данный фестиваль является крупнейшей платформой в Европе, посвящённой азиатскому кинематографу.

(RKI)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одписали Пханмунчжом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27 апреля на межкорейской границе состоялась встреча лидеров Юга и Севера Кореи - президента РК Мун Чжэ Ина и председателя Госсовета КНДР Ким Чен Ына.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переговоры прошли в очень дружественной атмосфере, со множеством даже милых моментов. По его итогам Ким и Мун огласили совместную декларацию, заявили об окончании Корейской войны, решив возобновить самые разные контакты. Мун также согласился приехать в КНДР этой осенью. Хотя саммит стал безусловно успешным, но эксперты отмечают, что главные решения еще впереди, когда пройдут переговоры Ким Чен Ына с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Если задаться целью придумать идеальную встречу лидеров двух Корей, когда все наполнено взаимной радостью и идиллией, то, пожалуй, ее надо бы сделать как раз такой, какой она и была в Пханмунчжоме. Созда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Мун и Ким кинулись навстречу весь тот позитив, которого не хватало в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ях за последние 11 лет - с момента предыдущего саммита 2007 г., когда в Пхеньяне побывал южнокорейский президент Но Мун Хен.

Символические и очень дружеские жесты начались буквально сразу, как только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пожали друг другу руки, протянув их через границу. Когда Ким переступил границу и перешел на южнокорейскую часть, то Мун спросил шутливо: "Вот вы стали первым лидером Севера, кто посетил территорию Юга. А когда у меня появится такая возможность?" Ким же не растерялся, немедленно предложив: "А чего ждать? Давайте прямо сейчас сходим!" После этого Ким Чон Ын взял Мун Чжэ Ина за руку и завел его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сделав шаг через границу. Главы Юга и Севера постояли там, опять пожали руки и снова вернулись на территорию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возобновив официальную программу саммита.

Далее стало известно, что по ходу беседы тема визитов получила продолжение: Ким Чен Ын заявил, что "если будет приглашение, то в любое время посетит Сеул", а Мун Чжэ Ина пригласили побывать и в Пхеньяне и на священной горе Пэктусан.

Саммит продолжился уже в более официальном виде, но все равно создавалось впечатление, что встречаются родственники, которые очень рады видеть друг друга. Сопровождавшая Ким Чен Ына в качестве личного секретаря и помощника его младшая сестра Ким Ё Чжон вообще "расцвела", когда пожала руку Муну, с кем она уже виделась во время Олимпиады в Пхенчхане.

После полторачасового общения утром лидеры пообедали отдельно, причем Ким вернулся на территорию КНДР, впечатлив журналистов своей охраной, которая буквально взяла его машину в плотное кольцо.

После обеда Ким снова пришел в гости к гостеприимному Мун Чжэ Ину. Встречу продолжили еще одним символическим ходом: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посадили на границе любимое дерево корейцев - сосну, которая олицетворяет единство и процветание нации. Тут опять все было переполнено символизмом и глубоким смыслом с "прицелом" на межкорейскую дружбу. Земля для сосны была привезена со склонов южнокорейского вулкана Халласан и северокорейской священной горы Пэктусан. Дерево лидеры полили водой, часть которой взята из протекающей в Сеуле реки Ханган, а часть из реки Тэдонган в Пхеньяне. Затем у сосны был открыт памятный камень, на котором высечены слова: "Укрепляем мир и процветание".

Саммит был продолжен совместной прогулкой по одному из мостов на границе.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достаточно долго общались с глазу на глаз, удалив помощников и журналистов на почтительное расстояние.

Судя по всему, взаимопонимание было таким большим, что лидеры Юга и Севера решили на этом завершить формальную часть переговоров. Ким и Мун подписали и огласили "Пханмунчжомскую декларацию во имя мира, процветания и объедин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Документ состоит из трех частей и 13 пунктов, затрагивающих вопросы улучшения межкорейских отношений, прекращения противостояния и любых враждебных действий, а также создания условий для постоянного мира.

Пожалуй, наиболее символически значимым стало решение Сеула и Пхеньяна официально прекратить Корейскую войну, приняв решение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заключению мирного договора в трехстороннем (РК-КНДР-США) или четырехстороннем формате (РК-КНДР-США-Китай).

Кроме того, Юг и Север договорились прекратить любые враждебные действия в отношении друг друга, открыть на территории Кэсона (КНДР) офис связи, где



будут постоянно работать представители двух стран, провести в августе встречу членов разделенных семей,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и сферах, подтвердили приверженность цели денуклеаризации Корейского полуострова. В будущем Юг и Север намерены также вести работу по соединению и модернизации железных дорог двух стран, активизировать контакты, включая выступление единой сборной Кореи на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остязаниях. Выяснилось, что разговор о визите Мун Чжэ Ина не был пустым. В декларации сказано, что Мун посетит Пхеньян этой осенью.

Зачитав документ, Мун и Ким тепло поблагодарили друг друга, обнялись, в который уже раз пожали руки. По просьбе Мун Чжэ Ина благодарность Киму прибы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Юга отметили аплодисментами. Программа саммита завершилась совместным банкетом, где тоже было еще одно историческое событие. В ужине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супруги обоих лидеров - жена Ким Чен Ына Ли Соль Чжу и первая леди Южной Кореи Ким Чжон Сук. Таким образом, впервые Южную Корею посетила еще и супруга лидера КНДР.

Несмотря на действительно необычайно дружественную атмосферу следует отметить, что Юг и Север вынуждены были ограничиться в первую очередь символическими шагами. Для реальной активизации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которого, насколько можно судить, Мун Чжэ Ин и его окружение действительно желают, у Сеула связаны руки, так как в отношении КНДР действуют очень мощные международные санкции, которые Южная Корея не может отменить в одностороннем порядке. В этой связи особую важность приобретает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Ким Чен Ына, на этот раз уже с президентом США Дональдом Трампом. Именно там уже могут быть приняты действительно прорывные решения международного, а не двустороннего уровня. Не случайно примерно через месяц Мун Чжэ Ин намерен побывать в Вашингтоне, чтобы рассказать Трампу о всех результатах и впечатлениях, а также сделать все, чтобы США и КНДР поставили точку в двустороннем противостоянии и не ставили под угрозу межкорейскую оттепель.

Комментарий эксперта

Итоги саммита "Российской газете" прокомментировал извес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по корейской проблематике профессор Сеульского университета Кунмин Андрей Ланьков: *"Как и ожидалось, саммит носил очень символический характер. Приняты многие важные и полезные решения, однако по самым важным вопросам их не было по объективным причинам. Хотя нынешнее руководство Южной Кореи заинтересовано и в решении ядерной проблемы КНДР и в активизаци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 Пхеньяном, но не может этого сделать. Ядерную проблему, по сути, КНДР может обсуждать только с США, а экономическое сотрудничество и отмену санкций - Совет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где опять же основную роль будут играть Соединенные Штаты, а также некоторые другие мировые державы. Юг и Север сейчас заинтересованы в снижении напряженности, сближении, что и позволило создать хорошую атмосферу. И Мун Чжэ Ин и Ким Чен Ын искренне старались достичь каких-то успехов, и в рамках наложенных ограничений им это удалось. Мун же имеет моральное право съездить в КНДР, так как Ким побывал в Южной Корее. Но, повторюсь, самые главные и наиболее сложные и проблемные вопросы КНДР может обсуждать только с США, а потому надо ждать американо-северокорейского саммита".*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Г, 27 апреля 2018 г.)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тметила День Весны и Труда

Первомай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отметили многочисленными шествиями и митингами.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в городах и поселках области собрали свыше 23 тысяч человек.

С традиционными для Дня Весны и Труда транспарантами и разноцветными шарами по центральным улицам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ошли массовые колонны. В шествии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офсоюз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учреждений и предприятий различн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а также органов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власти и местного самоуправления.

- Сегодняшний праздник - это хороший повод встретиться со своим любимым коллективом вне работы. Сегодня прекрасная погода, настроение отличное. Приятно пройтись с коллегами по красивому и ухоженному городу, - поделилась эмоциями жительница Южно-Сахалинская Анастасия Камолова.

Главные события праздника в областной столице развернулись на площади Ленина, куда с двух сторон прибыли участники шествия. Здесь, у мэрии, установили сценическую площадку. Официальная часть митинга началась исполнение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гимна России. Со словами поздравлений к жителям и гостям города обратились официальные лица города и области.

После официальной части митинга для жителей и гостей города состоялся праздничный концерт с участием сахалинских творческих коллективов.

Отметим, что в этом году празднованию Первомай предшествовала большая работа по приведению в порядок городов и поселков области. Состоялась целая серия массовых субботников во всех муниципалитетах.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вошел также в пятерку лучших регионов России по реализации программ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Отремонтировано почти 450 многоэтажек, заменено 166 крыш и обновлено 207 фасадов. По данным показателям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богнали лишь Белгородская, Самарская области и Москва. Благодаря программе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почти 65 тысяч сахалинцев уже улучшили свои условия проживания. При этом работы по благоустройству ведутся в тесном диалоге с жителями жилых домов, которые вовлечены в процесс капитального ремонта с этапа его планирования до приемки выполненных работ в рамках реализации в области проекта «Формирование комфортной городской среды».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готова развивать массовый бюджетный туризм

В Федеральном агентстве по туризму состоялось **встреча-обсуждение по развитию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и туро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В ней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По итогам мероприятия прошла пресс-конференция, в которой помимо представителей Сахалинской и Камчатской областей Антона Зайцева и Татьяны Девушкиной,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руководитель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туризму Олег Сафонов и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туроператора «TUI Россия» Тарас Демур. На встрече с журналистами спикеры обсудили вопросы популяризации и продвижения перспективных внутрироссийских туристских направлений и маршрутов по Дальнему Востоку, а также ситуацию с формированием доступных пакетных туров на Камчатку, Сахалин 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а.

- Мы наблюдаем расширение географии пакетных туров, в последнее время их количество выросло на 20 процентов, - отметил Олег Сафонов. -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к реализации задачи по созданию подобных туров на Дальний Восток подключился один из крупных и известных операторов - «TUI Россия». Это можно считать новым этапом развития внутреннего туризма, я уверен, что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путевки на Сахалин и Камчатку будут пользоваться большой популярностью, как среди россиян, так и среди иностранцев.

- Сахалин - единственный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России, где немало мест, привлекательных для любой категории туристов, - сказал Антон Зайцев. - Наш горнолыжный комплекс «Горный воздух» составит конкуренцию любому отечественному зимнему курорту. Также хочу отметить, что множество уникальных природных явлений, ради которых туристы едут за границу - есть у нас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Совместно с туроператором TUI нам удалось сформировать порядка 13 пакетных предложений, и мы уверены, что это только начало нашег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в направлении развития массового туризма.

Напомним, что в конце марта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и крупный мировой туроператор «TUI Россия»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в сфере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настоящий момент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TUI Тарас Демур подтвердил интерес оператора к формированию пакетных туров по нашему региону.

Пакетный тур - это готовый набор для отдыха. Он

рассчитан на «средне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туриста, в цену включены перелет, проживание, питание (если оно есть в выбранном туристом варианте отдыха), трансфер, медицинская страховка.

В настоящее время объем туристических услуг, оказываемых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меет стабильную динамику рост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работают 82 туристические компании, в числе которых 22 оператора. Наибольший интерес к Сахалину и Курильским островам проявляют гости из регионов Азиатско-Тихоокеанского региона 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ики. В перспективе планируется создание туров с большим количеством экскурсионных программ, улучшением качества предлагаемых услуг вместе с местными принимающими компаниями.

На Сахалине растет выпуск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Подведены итоги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за первый квартал текущего года. Объем валового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одукта, по оценке министерства 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оставил 227,5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00,1 процента по отношению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прошлого года. Объем промышленного производства сложился в размере 215,8 млрд. рублей, или 99,8% к январю-марту 2017 года.

Нефтяники региона добыли, включая газовый конденсат, 4,7 миллионов тонн, что ниже января-марта 2017 года на 1,2 процента.

Добыча газа, по сравнению с аналогичным периодом 2017 года, увеличилась на 15,4 процента и составила 8,8 миллиарда кубометров.

За три месяца угольными предприятиям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быто 2,4 миллиона тонн угля, что в 1,8 раза выше января-марта 2017 года.

Улов рыбы и морепродуктов (по данным СКТУ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составил 196,8 тысяч тонн, или 85,6 процента к январю-марту 2017 года (сокращение объемов вылова сельди и минтая), переработано 164 тысяч тонн, или 96,1 процента к аналогичному периоду 2017 года.

В первом квартале 2018 года, в целом по области, отмечался рост производства сжижен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а, электроэнергии, пара и горячей воды, мебели, пресервов рыбных, молока, сыров, кисломолочных продуктов, мясных субпродуктов и полуфабрикатов, масла сливочного, минеральной воды.

Рост выпуска продукции сельского хозяйства за три месяца текущего года составил 0,8 миллиарда рублей, или 129 процентов к январю-марту 2017 года. Значительно увеличилось производство мяса (в 1,7 раза) и яиц (в 1,4 раза), производство молока возросло на 6,5 процентов. поголовье свиней увеличилось в 2 раза, птицы - на 17,3 процента, крупного рогатого скота - на 6,2 процента. Средний надой молока на 1 корову вырос на 8,1 процента.

Населением за счет собственных и заемных средств построено 36,7 тысячи квадратных метров жилья (на 39,6 процентов выше аналогичного периода 2017 года), что составляет 82,1 процента от общего ввода жилья.

На потребительском рынке в отчетном периоде наблюдается рост объемов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на 3,8 процента), розничной торговли (на 3,3 процента), платных услуг населению (на 1,8 процента).

Уровень регистрируемой безработицы на конец марта 2018 года составил 0,7 процента, что ниже аналогичной даты 2017 года на 0,2 процентных пункта.

Жильцы первого арендного дома в Шахтерске получили ключи от квартир

Новый трехэтажный дом в Шахтерске Углегорского района построили за полтора года. Его новоселами стали 36 семей -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профильны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ники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Потребность в подобном жилье в поселке теперь полностью закрыта.

Монолитное здание сейсмоустойчивостью в 9 баллов возвели по энергосберегающей технологии. Придомовую территорию благоустроили, установили детскую площадку.

Новый дом сдан «под ключ». Стоимость аренды квартир в нем на 50 процентов ниже среднерыночной.

Одна из новоселов - фельдшер шахтерской станции скорой помощи Анастасия Герасимова.

- Моей семье из четырех человек предоставили трехкомнатную квартиру. Она очень просторная, светлая и теплая. Эмоции переполняют, до последнего не верила, что получу эту квартиру.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придомовая территория, будет, где разгуляться ребятам, - поделилась впечатлениями Анастасия.

В целом,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были возведены и сданы в эксплуатацию 27 арендных многоквартирных жилых домов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Холмске, Поронайске, Невельске, Корсакове, Долинске и в селе Малокурильском острова Шикотан. Ключи от 816 квартир получили работник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образования, муниципаль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молодые специалисты, работники бюджетной сферы. Также уже ведется строительство 41 дома в 13 городских округах - это 1168 квартиры

- На Сахалине исторически сложилась довольно

высокая стоимость арендуемых квартир, - отмет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О «Сахалинское ипотечное агентство» Геннадий Осипов. - Чтобы снизить цену и дать возможность людям жить в комфорте, власти области приняли решение строить муниципальное арендное жильё. Ег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позволило решить кадровую проблему, привлечь и закрепить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работы в районах, в том числе и отдаленных.

Сахалинцы, проживающие в арендных домах не менее полугода, могут выкупить свои квартиры в собственность, используя льготный ипотечный заём. Для молодых семей с одним ребенком процент по нему снижен до 7 процентов, с двумя детьми до 3,5 процентов, многодетные семьи - 0 процентов. При этом по решению губернатора для курильчан процентная ставка снижена до 0 процентов годовых.

Напомним,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расширения мер для улучшения жилищных условий граждан заявлял в своем послании Федеральному Собранию президент страны Владимир Путин.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готовится к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е

Представител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ахалино-Курильского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Росрыболовства, Пограничной службы, СахНИРО, Сахалинского филиала Главрыбвода, а также общественных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 АРСО, АРС и ассоциации лососевых рыбоводных заводов, приняли участие в заседании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рыбохозяйственного совета (ДВНПС), состоявшегося в Петропавловске-Камчатском.

Рассмотрение региональных стратегий ведения промысла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 путину 2018 года стало основной темой повестки заседания. Островную стратегию, разработанную специалистами СахНИРО, на совете озвучил руководитель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В. Горничных.

Согласно прогнозным оценкам науки, ожидается довольн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й подход лососей к берегам Сахалина и Курил. В целом рекомендуемый вылов составляет 96 461 тонну тихоокеанских лососей. Вылов горбуши спрогнозирован в объеме 68540 тонн, кеты - 26000 тонн, нерки - 1405 тонн, кижуча - 500 тонн и си-мы 16 тонн. Наиболее массовые подходы горбуши ожидаются на Восточном Сахалине и Итуруп. При этом северная часть залива Терпения и залив Анива может оказаться в условиях дефицита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этого вида на нерестилищах. Наука обозначила предполагаемые сроки начала и окончания промысла горбуши и кеты в различных районах.

Первыми смогут начать добычу горбуши рыбаки юго-западного Сахалина - с 1 июня. Освоение кеты на островах Итуруп и Кунашир продлится до 30 ноября. Как и в предыдущие годы, предложено установление проходных дней для обеспечения свободного прохода производителей в нерестовые реки. Окончательные решения по всем вопросам, связанным с организацией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будут принимать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Учитывая непростую ситуацию с подходами горбуши в реки заливов Терпения и Анива, А.В. Горничных озвучил предложение, поступившее от руководства ассоциации рыбопромышлен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РСО), о мерах по дополнительному снижению промысловой нагрузки на участке от мыса Крильон до мыса Терпения, путем сокращения длины центрального крыла ставного невода до 500 метров. Председатель ДВНПС, заместитель руководителя Федерального агентства по рыболовству П.С. Савчук, поручил отраслевой науке в кратчайшие сроки подготовить заключение по данному предложению

В ходе выступления также были подняты вопросы реализации решений предыдущего заседания ДВНПС: ввести запрет на ведение сетного лова лососей в режиме прибрежного и промышленного рыболовства в прибрежных водах острова Сахалин, сократить длину центрального крыла ставного невода до 1,5 километров. Данные меры регулирования промысла, направленные на снижение промысловой нагрузки, предусмотрены в проектах нормативных правовых актов, разработанных Росрыболовством и Минсельхозом России. Председатель ДВНПС заверил участников камчатского заседания ДВНПС, что упомянутые акты будут приняты до начала лососевой путины 2018 года.

Вопрос о необходимости изменения порядка деятельности комиссии по регулированию добычи анадромных видов рыб и ее состава неоднократно поднимался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разных уровнях в 2017 году. Решено дополнительно рассмотреть предлож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 преддверии путины 2018 года.

Инициированный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и обсужденный на осеннем заседании ДВНПС вопрос о запрете использования рыбоучетных заграждений как орудий добычи не был отражен в протоколе осеннего ДВНПС.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문화생활

러한 친선 새 봄맞이 음악회 즐겨

지난 30일(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한인문화센터에서 러시아-한국 친선 2018 새 봄맞이 음악회가 열렸다. 이번 음악회는 사할린주 필하모니아의 주최로, 사할린주한인회(회장 박순옥)와 사단법인 국제문화공연교류회(회장 양평수)의 협조로 이뤄졌다. 공연에는 한국 및 사할린 아티스트들이 참여했다.

이날 스포츠댄스를 하는 자매 김보그단과 김윤이가 우아한 댄스와 다이나믹한 라틴춤으로 관객들에게 기쁨을 안겨주

었고 사할린 관악기 앙상블(지도 알렉세이 코왈렌코)은 관객들에게 익숙한 곡을 연주하여 기분을 한껏 돋우었다.

또한 한국에서 방문한 김정숙 씨는 부채춤, 한



국 노래와 <100만송의 장미> 가창으로, 김중순 어르신(82세)은 색스폰 연주로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공연의 메인은 서울에 서 온 <재즈 브레이크



(JAZZ BRATZ)>재즈 앙상블(지도 양해진 교수)이었다. 그들이 즐겁게 연주한 재즈음악을 관객들은 마음껏 즐겼다. 연주자들과 함께 솔로 김혜진 씨와 베도프 재즈 댄스 스타일을 추구하는 댄스팀이 함께 출연해 다양한 느낌의 재즈음악이 제대로 전달되면서 관객

들은 흥에 겨워 때로는 함께 춤추기도 했다.

<사랑>, <베사메 무초>, <100만송의 장미> 등이 들리자 박수소리가 터져 나왔다.

가족, 친구들과 함께 공연을 본 필자는 정말로 좋은 시간을 즐길 수 있었다.

(배순신 기자)

[우리말로 깨닫다]

우울(憂鬱)을 떠나보내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병이 무엇냐고 묻는다면 저는 우울증이라고 대답합니다. 우울증에 걸린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고통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심하게 우울증을 앓아본 것도 아니면서 쉽게 이야기하는 게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있습니다만 우울증은 희망이 없는 병이기 때문입니다. 나을 희망이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을 갖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나을 거라는 생각이 없다면, 앞으로 좋은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 조현용(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근심이 머릿속에 뻑뻑이 담겨있다면, 다른 생각이 내 속에 들어올 틈마저 막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러한 감정을 우리는 <우울하다>라고 합니다. 우울의 한자는 근심할 우(憂)에 뻑뻑할 울(鬱)입니다.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요. 사실 울(鬱)이라는 단어에는 답답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여유가 없으니 답답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럴 때 쓰는 어휘가 우리말에서는 <짜증>입니다. 짜증 역시 자신을 쥐어짜서 빈 공간을 만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가 없죠.

우울이나 짜증의 문제는 다른 사람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나 혼자 버려져 있다는 생각, 모든 것을 나 혼자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이 점점 스스로를 가두게 됩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울은 보는 사람마저도 힘들게 합니다. 우울이 함께하는 삶을 방해합니다. 가족 중의 한 사람이 우울한데 다른 사람은 기쁠 수는 없습니다. 그런 가족이라면 이상한 가족이겠죠.

영어에서는 블루(blue)를 우울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말에서는 푸른색이 희망을 나타내는데 영어에서는 푸른색이 우울함도 나타낸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우리말의 푸른색도 다양한 장면에서 쓰입니다. 보통은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퍼렇게 멍이 들었다는 말에서 희망을 찾을 수는 없겠죠. 영어의 블루는 주로 한밤중의 어스름한 푸름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말에서는 <어스름푸레>라고 합니다. 어두워서 희미한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인데 <푸레>는 푸르다와 관계가 있어 보입니다. 정확한 어원은 공부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한밤의 푸름에서 희망을 발견하기는 어렵겠지요. 혹시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보통은 하루의 시간이 다음 날의 시간으로 바뀌는 때에는 쓸쓸한 감정이 들곤 합니다. 무언가 뚜렷하지 않은 광경과 새어나오는 희미한 빛에서 느끼는 외로움도 있지요. 블루는 그런 느낌입니다. 블루스라는 음악은 그런 감정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울은 나쁜 감정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연히 예라고 대답할 겁니다. 저는 오히려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는 평범한 감정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하루를 살펴보면 해가 뜨는 새벽도 있고, 맑은 아침도 있고, 짙은 낮도 있고, 노을빛 가득한 저녁도 있습니다. 물론 어두운 밤과 어스름푸레한 시간도 있겠지요. 그래서 우울한 감정은 흐름에 따라 지나가게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명상을 가르치는 분께 나를 괴롭히는 감정을 없애려 하지 말고 흘러보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없애려 하는 마음조차 집착이 됩니다.

늘 우울할 것이라 생각하는 마음이 스스로를 괴롭힙니다. 계속 밤만이 있을 거라는 두려움이 감정 속에 우울을 빼곡히 채워 놓습니다. 자꾸 마음이나 기분이 가라앉게 됩니다. 이럴 때 쓰는 한자어가 <침울>입니다. 침울(沈鬱)은 우울한 마음으로 점점 가라앉은 상태를 표현합니다. 정말 힘든 감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는 우울이라는 단어를 보면서 흘러보낸다는 말도 함께 떠올립니다. 언젠가 지나갈 겁니다. 없애려 하지 말고 떠나보내야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빈 공간을 만들어야겠습니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진광현 경남도의원 예비후보 "사할린동포 지원 재단 추진"

[6·13 지방선거] 영주귀국·생활안정 지원 등 실질 대책 마련 정책공약 내놔

진광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의원 예비후보(김해 제6선거구/장유2,3동)는 사할린동포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개선과 생활안정 등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진 예비후보는 △사할린동포 배우자와 자녀까지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 △주거환경 개선 및 공동생활문화 시설 확충 △생활보조를 위한 근로여건 개선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추진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추진 등을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김해 장유에는 지난 2015년 국내 영주귀국한 사할린동포 4,368명 중 87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사할린 현지 가족들과 떨어져 이산가족으로 살며 고충과 외로움을 겪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지난해 기준 2만 6,4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 1996년 ‘재외동포정책 지원위원회’ 회의를 거쳐 영주귀국 사할린 한인 지원사업이 시행됐으나, 대상을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사할린에서 태어나거나 구조한 동포 1세대로 한정함으로써 영주귀국에 따른 뜻하지 않은 이산가족 발생이 문제점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재정지원도 2016년 이후 끊겨 관련 사업 규모도 축소됐다. 또, 생활보조금도 1인당 월 49만 원 수준에 불과하며 대부분 고령인 탓에 소득활동이 불가능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외에도 언어소통을 위한 한국어교육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 고학력 사할린동포의 러시아어 교육 활동 활용을 통한 사회활동 참여 보장, 사할린동포 기념 및 추모사업, 지원위원회 및 지원재단 설립 등도 풀어야 할 과제에 포함됐다.

진 예비후보는 “그동안 정부는 일본의 재정적 지원을 기초로 사할린동포의 영주귀국을 추진해 왔으나, 가족과의 이산 등 비인도적인 문제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영주귀국과 정착지원에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할린으로 이주한 동포에 대해 관련 국가



와의 외교적 노력을 통한 피해 구제 및 동반가족의 영주귀국과 정착을 지원하고, 사할린 잔류 희망자와 사할린동포의 국내 유족에 대한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위한 법적 근거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사할린동포에 대한 영주귀국 및 정착 지원에 대한 특별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이 지난 2012년 발의한 후 지난해 다시 대표발의를 했으며, 현재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진 예비후보는 생활보조금의 현실화와 인천 사할린동포복지회관에서 운영 중인 국내 유일 요양시설의 확대 설치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는 “일본의 재정지원이 끊어진 후 인천의 사할린동포복지회관의 경우 영주귀국 어르신들에게 매일 1인당 1,000원 씩 지급되던 간식비까지 줄인 상태”라며 “우리 지역에서도 생활보조금의 현실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LH(한국토지주택공사) 차원에서 개방형 복도식 아파트의 방한·방풍 유리창문 설치를 비롯해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한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김해시에서도 사회적관계망서비스나 평생학습 프로그램 등을 활용한 한국어 및 생활교육 활성화 문제 해결의 노력을 보다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프레시안)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유즈노사할린스크 청소년들 <책도 역시 참전했다>행사에 참가

5월 8일 14시에 유즈노사할린스크시에서 전승절 맞이하여 <책도 역시 참전했다> 청소년 애국체험행사가 진행된다. 도서관 행사장에서는 시 낭송대회가 개최된다. 참가 희망자들은 마이크 앞에 서서 전쟁시를 낭송할 수도 있다. 이후 자원봉사자들은 시내 거리 (레닌나 거리, 코무니체스키 거리)를 행진하며 사할린 시인들의 시와 작품에 대한 홍보용 전단지들을 행인들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이 행사에는 시내 학교의 학생들과 시 청년이니셔티브센터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한다.

전통적으로 이 행사는 2012년부터 사할린주 일반과 학도서관 독서실에서는 시인들의 문학적 유산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대조국전쟁 시기 국민의 공적을 찬미하는 시낭독을 진행하고 있다고 도서관 측이 전했다.

Молодежь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примет участие в акции "Книга тоже воевала"

8 мая в 14:00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состоится молодёжная патриотическая акция ко Дню Победы "Книга тоже воевала". Откроет мероприятие поэтическая площадка на подиуме библиотеки. Желающие смогут в микрофон прочитать стихи о войне. В дальнейшем волонтеры раздадут прохожим на улицах города (улица Ленина, Коммунистический проспект) тематические листовки со стихотворениями сахалинских писателей и информацией об их творчестве. В акц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учащиеся школ города и волонтеры центра молодёжных инициатив.

Мероприятие традиционно проводится центром чт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ной универсальной научной библиотеки с 2012 года в целях продвижения литературного наследия писателей, поэтическим словом воспевающих подвиг народа в Велик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ойне, сообщает библиотека.

<아시아의 아이들> 경기

예비자원봉사자들 '아카데미' 연수 완료

'2018년 자원봉사학교' 교육캠프의 공식 폐막식이 사할린에서 진행되었다.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대회 준비과정의 일환으로 '유빌레이너' 아동재활센터에서 연수가

진행되었다. 주내 각 지역에서 모여든 자원봉사자들은 며칠 동안 자원봉사활동의 16가지 방면에서 교육을 받았다. 이들은 세미나, 실습 훈련, 활동교실에 참가하면서 유명 선수들, 자원봉사단체의 지도자들, 야쿠치야 자원봉사자센터 대표자들 비롯해 관심을 가진 관계자들과의 만남이 이뤄졌다.

연수를 총결하며 참가자들 모두 '2018년 자원봉사학교' 연수를 이수하여 수료증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자원봉사자들에게 승리의 상징인 게오르기 리본 세트를 전달하여 자신의 지역에서 배포하도록 했다.

폐회식 행사의 한 부분으로 주최 측이 제자들에게 민속춤을 소개하자 참가자들은 교육자들 앞에서 주저없이 발랄한 춤 플래시몹으로 화답했다.

'아시아의 아이들' 제1회 국제동계스포츠경기에 자원봉사자 1000여 명이 참가하는데 그중에 95%가 사할린주민들이란 것을 상기시킨다고 주 스포츠부 홍보실이 전했다.

Будущие волонтеры игр "Дети Азии" завершили обучение в "академии"

Торжественная церемония закрытия образовательного лагеря "Академия волонтеров — 2018" состоялась на Сахалине.

Обучение проходило на базе оздоровительного детского центра "Юбилейный" в рамках подготовки к I зимним международным спортивным играм "Дети Азии". В течение нескольких дней добровольцы с разных районов региона обучались по 16 направлениям волонтерской работы. Участвовали в семинарах, тренингах и мастер-классах, встречались с известными спортсменами, лидерами добровольческих движений,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центра по работе с волонтерами Якутии и другими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По итогу каждый участник получил сертификат о прохождении обучения в "Академии волонтера — 2018". Кроме того, добровольцам вручили комплекты георгиевских ленточек для раздачи символов Победы у себя в районах.

В завершение торжественной части организаторы мероприятия представили своим ученикам номер с элементами народного танца. Участники не остались в долгу перед наставниками и ответили ярким танцевальным флеш-мобом.

Напомним, в I зимних международных спортивных играх "Дети Азии" примут участие около 1000 волонтеров, 95% из них — сахалинцы,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областного минспорта.

(사할린주 및 러시아 언론기관 자료들에서)

Ресторан "Гагарин"

Шведский стол (будние дни)
с 12.00 -15.00

Юбилеи, свадьбы, дни рождения
(по предварительной заявке)
с 18.00-24.00

г. 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Комсомольская,133
тел.: 49-84-02

реклама



새고려신문 살리자

Поможем "Сэ корё синмун"

러시아에 사시는 분들은 이 계좌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Пожертвования просим отправлять на расчетный счет: 40702810750340100530 в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м банке ОАО "Сбербанк России" г. Хабаровск. **к о р р . с ч е т :** 301018106000000000608, БИК: 040813608. Получ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е синмун» ИНН 6501011406, КПП 650101001.

Назначение платежа: пожертвование.

한국에서는: 농협중앙회 계좌번호 190-01-021311

예금주 BYA VIKTORIY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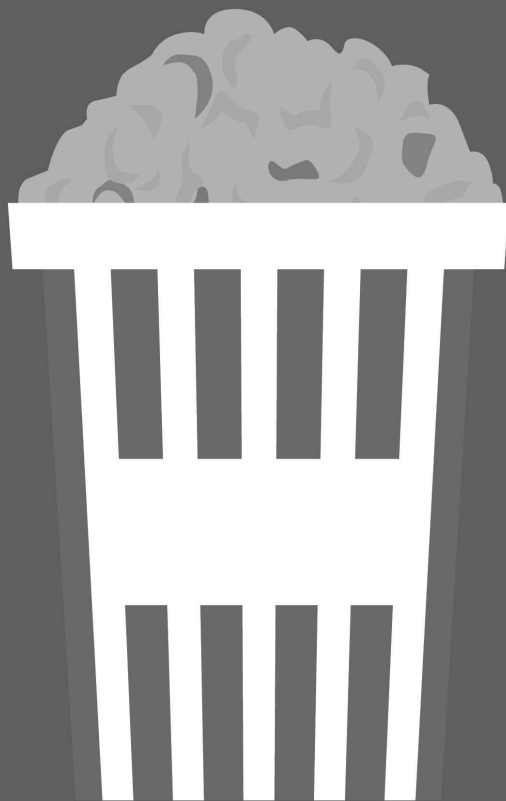
(본사 편집부)

bilet.sakh.com

БИЛЕТЫ

в кино

онлайн



реклама

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

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

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

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с.з.г. (주필) 배 위토리아

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

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4-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

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53740
Тираж 1300 экз.

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Н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